

『도남잡지』에 나타난 조운제의 삶과 시조

윤병용*

- I. 서론
- II. 『도남잡지』의 구성과 주요 내용
- III. 조운제의 시조관과 자작 시조의 특징
- IV. 결론

<국문초록>

『도남잡지』는 도남 조운제(1904~1976)가 1964년에 자신의 회갑을 기념하여 기존에 신문, 잡지 등에 기고했던 글과 자작 시조 등을 모아 간행한 책이다. 이는 조운제의 저술 중 학술서나 교과서가 아닌 유일한 사례로서, 그의 학문적 성취 이면에 자리한 삶의 궤적과 인간적인 내면, 실천적 지향, 문학적 의식 등을 가까이 들여다볼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본고는 그간의 연구사에서 주목되지 못했던 『도남잡지』의 성격과 특징적인 국면들을 살피며, 조운제의 삶과 문학에 대해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남잡지』에 수록된 글은 학술 논문에 가까운 것부터 문학 및 학문에 관한 논설, 시사평론, 고서(古書)나 개인사에 관한 수필, 각종 서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과 양식을 포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조운제가 일생 동안 견지했던 학자로서의 태도는 물론,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던 지식인이자 교육자,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을 겪기도 하는 생활인으로서의 면모를 두루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가 직접 창작하여 『도남잡지』에 수록한 시조 <곡장남봉래>와 <지포팔경>은 그가 평생에 걸쳐 연구한 전통적인 시조의 미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의식을 실제 창작을 통해 구현한 사례로서 주목을 요한다. 그의 자작 시조들은 이미 ‘낡은 시형’이 되어버린 시조가 그 미학적 이념과 정수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인의 생활을 담아낸 문학으로서 어떻게 존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모색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도남잡지』에서 확인되는 이러한 작업은 다른 글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조윤제의 작가적 면모를 시사하는 동시에, 그의 시조관이 박제된 이론에 머물지 않고 실제 창작의 층위에서 실현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핵심어: 도남잡지, 도남, 조윤제, 시조 형식, 현대시조, 도남학

1. 서론

『도남잡지(陶南雜識)』¹⁾는 도남 조윤제(陶南 趙潤濟, 1904~1976)가 1964년에 자신의 회갑을 기념하여 기존에 신문, 잡지 등에 기고했던 글과 자작 시조 등을 모아 간행한 책이다. 본고의 목적은 『도남잡지』에 수록된 글들을 검토하여 책의 전반적인 성격과 특징적 국면들을 밝히고, 학술적 성격의 저술만으로는 드러나기 어려운 조윤제의 학문적·사회적 지향과 작가적 의식 등의 면모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로써 조윤제의 삶과 문학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한국문학 연구의 선구자이자 대가로서 조윤제가 후대에 미친 영향은 이루 다 거론하기 어렵다. 이에 그가 남긴 성과들과 그 의의를 평가하고 계승하려는 시도 역시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는 특히 조윤제가 수행한 국문학 연구의 초석이자 본령이라 할 수 있는 고전시가의 형식 및 내용에 관한 고찰,²⁾ 문학사 연구,³⁾ 그리고 그의 연구를 관통하는 ‘민족사관’에 관한 견해

1) 조윤제, 『도남잡지』, 을유문화사, 1964.

2) 조규익, 「조윤제의 『조선시가사강』론 - 『한국고전시가사』 서술방안(1)」, 『예산학보』 19, 예산학회, 1996; 박노준, 「『한국시가사강』 살펴 읽기」, 『도남학보』 20, 도남학회, 2004; 임경화, 「식민지하의 <조선시가사>의 형성 - 조윤제 『조선시가사강』을 통해 본 식민지 스티그마의 재해석」, 『일본연구』 3,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2004; 한창훈, 「조윤제 초기 시가 연구의 특징과 그 성격」, 『우리어문연구』 23, 우리어문학회, 2004; 성기옥, 「한국 시가 연구와

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대부분 주요 저작으로 알려진 『조선시가사강』과 『조선시가의 연구』, 『국문학사』, 『국문학개설』 등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 왔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향 속에서 조운제의 『도남잡지』에 대해서는 책의 일부가 필요에 따라 인용되어 왔을 뿐, 전체적인 내용 및 의의 등은 본격적인 고찰의 대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기실 조운제의 학술적 성취, 혹은 학자로서의 삶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개인 수필집에 가까운 『도남잡지』가 점하는 비중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 ‘개인적’이고 ‘수필’에 가까운 독특한 성격으로 말미암아 표층으로 드러나지 못했던 조운제의 내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도 생각된다.

조운제의 고회를 기념하여 작성된 저작 목록에 따르면 그의 저서는 총 13종에 달하는데,⁵⁾ 이 중 학술적 성격의 저서나 교과서를 제외한 저술은 『도남잡지』가 유일하다. 이처럼 논문이 아닌 잡문(雜文)을 묶어 내는 작업에 대해서는 조운제 역시 자신의 삶에 있어 매우 예외적인 일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회갑을 맞아 지난날의 나의 글들을 모아 보았다. (...) 이것은 물론 나의 외도(外道)다. 학자란 원래 이런 지저분한 글을 쓰지 않는 법이고, 비록 마지 못하여 쓰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참다운 학구생활의 여적(餘滴)이 되어 학술적인 논문이 아니면서도 그 논문에 못지않은 학문적인 냄새가 풍기는 글이 되어야 하겠는데, 내가 이제 모아 본 이 글들은 감히 그의 문전에도 가지 못할 뿐 아니라

도남, 『고전문학연구』 27, 한국고전문학회, 2005; 류준필, 『조선시가사강』의 학술사적 의의를 다시 묻다, 『국문학연구』 25, 국문학회, 2012; 『조운제 한국문학연구의 연구사적 의의 - 시가 연구를 중심으로』, 『애산학보』 49, 애산학회, 2022; 박슬기, 『도남 조운제의 조선 시가사 기획 - 형식의 역사화, 역사의 형식화』, 『개념과 소통』 19, 한림과학원, 2017 등.

- 3) 이동영, 『조운제의 『한국문학사』 검토』, 『도남학보』 20, 도남학회, 2004; 임형택, 『한국근대의 국문학과 문학사 - 1930년대 조운제와 김태준의 조선문학연구』, 『민족문학사연구』 46,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1; 장문석, 『문학이란 무엇인가 - 도남 조운제와 가람 이병기의 해방 후 문학사 다시 읽기』, 『현대문학의 연구』 57, 한국문학연구학회, 2015 등.
- 4) 조동일, 『조운제의 민족사관과 문학의 유기체적 전체성』, 도남조운제박사고회기념논총간행위원회 편, 『도남 조운제 박사 고회기념논총』, 형설출판사, 1976; 김명호, 『조운제의 민족사관에 대한 신고찰』, 『한국학보』 4, 일지사, 1978; 『도남의 생애와 학문 - 민족에 살고 민족에 죽다(生於民族, 死於民族)』, 『고전문학연구』 27, 한국고전문학회, 2005 등.
- 5) 최진영·이동영, 『저작요목』, 도남조운제박사고회기념논총간행위원회 편, 앞의 책, 24면.

완전한 학문의 오도(誤道)요 학자의 타락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는 이 글들을 이제 다시 읽어볼 때 그 하나하나가 다 나 자신의 한쪽 모습인 양 싶고, 따라 그 전체를 통해 보면 내 자신을 내가 보는 듯한 느낌이 있어 나는 이를 사랑하고 버리지 못할 데가 있다.⁶⁾

위에 인용한 『도남잡지』의 서문에서 그는 책에 수록한 자신의 글에 대해 “나의 외도(外道)”이자 “완전한 학문의 오도(誤道)요 학자의 타락”이라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강한 표현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모인 글들 하나하나가 다 “자신의 한쪽 모습”인 것 같고 그 전체를 통해 “내 자신을 내가 보는 듯한 느낌”이 있기에 이를 “사랑하고 버리지 못”하였다는 대목이다. 이는 평생 학자임을 표방하며 살아온 자신의 삶에 또 다른 면모가 존재한다는 고백임과 동시에, 그것이 『도남잡지』에 반영되어 있다는 언급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주지하듯 『도남잡지』는 조운제가 회갑을 맞이한 1964년에 발간되었다. 그런데 이 무렵 그의 삶은 평탄치 않았다. 그는 1960년 4·19 이후 한국교수협회 의장으로서 시국선언을 발표하였고, 1961년 2월에 결성된 민족자주통일 협의회에 참여하여 통일방안심의위원회 의장직을 수행하는 등의 활동을 지속하였던바, 5·16 군사 쿠데타 직후에는 국가보안법 제1조 소정의 죄목을 범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이듬해 5년의 구형을 받고 성균관대 교수 겸 대학원장직을 사임하게 된다. 다행히 혁명재판소에 의해 무죄가 선고되어 8개월 반만에 출옥할 수 있었지만,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상실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화를 입은 셈이었다.⁷⁾ 이는 1950년 6·25 전쟁 당시 학내 부역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에 연루되어 서울대 교수직에서 물러났던 과거의 기억과도 겹쳐지면서, 자신을 둘러싼 불안정한 현실에 관한 자각을 심화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조운제는 출옥된 해 5월부터 『국문학사』의 개정에 착수하여 1963년 7월에 『한국문학사』⁸⁾를 출간하기에 이른다. 자찬묘

6) 조운제, 『서문』, 앞의 책, 1964.

7) 조운제, 『도남연보』, 도남조운제박사고회기념논총간행위원회 편, 앞의 책, 13~23면; 김명호, 앞의 논문, 33~43면.

8) 조운제, 『한국문학사』, 동국문화사, 1963.

지명에 따르면 『한국문학사』의 집필은 그에게 있어 ‘국문학연구의 목적’이자 ‘필생의 사업’이었으며⁹⁾ 지난 연구를 총결산하는 의미를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¹⁰⁾ 『도남잡지』는 바로 이듬해에 출간되었다. 불안하고 험난한 길을 묵묵히 걸어온 자신의 삶을 비로소 성찰하게 된 시기, 그에게 있어 『한국문학사』가 자신의 학문적 여정을 결산하는 저작이었다면, 『도남잡지』는 자신의 생활적 자취이자 “나 자신의 한쪽 모습”을 반추하고 정리하는 저작이었던 셈이다.

따라서 『도남잡지』를 살피는 작업은 학술적 저술 이면에 자리한 조운제의 인간적인 면모와 의식에 다가가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도남잡지』는 대부분 기존에 발표된 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다섯 개의 장에 나뉘어져 있어 편찬 과정에서 일정한 선별 및 분류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남잡지』에서 새로 등장한 글들은 주로 그의 개인사와 관련한 글이거나 교가의 노랫말, 시조 작품 등인데, 이 중에서도 특히 그의 자작 시조는 조운제의 작가적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상의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본고에서는 먼저 『도남잡지』의 전반적인 구성과 내용을 개괄하면서 각 장을 대표하는 글들을 살펴 보도록 한다. 다음으로 조운제의 시조관(時調觀)이 반영된 그의 논의들을 검토하고, 이에 비추어 자작 시조들의 양상과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 조운제의 삶과 문학을 보다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¹¹⁾

9) “『한국문학사』를 저술하였으니, 이것이 필생의 사업이었다(著有韓國文學史, 此爲畢生事業).” 조운제, 『自銘』, 앞의 책, 1964, 369면. 이에 앞서 조운제는 개정 전의 책인 『국문학사』를 『국문학개설』과 함께 언급하며 “실로 나의 국문학연구의 목적은 본시 이 두 책을 쓰는데 있었던 것이다”(조운제, 『서문』, 『국문학개설』, 동국문화사, 1955)와 같이 언급하기도 하였으며, 그에게 문학사 저술이 상당한 의미를 지닌 작업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10) “나는 이제 나이도 육십 고개를 넘어선다. 그러면 나의 학문은 앞으로 더 진전이 있다하여 보았자 또 다른 별것이 나오리라고는 기대하기가 힘든 일이다. 혹은 이것이 나의 국문학연구의 결산이 될지도 모르겠다.” 조운제, 『서문』, 앞의 책, 1963, 2면.

11) 논의의 편의상 이후 본고에서 『도남잡지』의 글을 인용할 때는 수록된 글의 제목과 『도남잡지』의 수록 면수만을 기재하고, 이 외에 조운제가 저술한 논저를 인용할 때는 책의 제명과 면수만을 제시하도록 한다.

II. 『도남잡지』의 구성과 주요 내용

『도남잡지』의 표지 바로 다음 장에는 조운제의 초상화와 더불어 <도남조운 제박사상(陶南趙潤濟博士像)>이라는 제명하에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다.

겨레 위한 학문에 힘쓰서 저술이 몸만큼 높이 쌓였고
영민한 인재 이끄시어 은혜가 끝이 없도다
시사(時事)를 나누시매 포부가 원대하셨는데
어찌하여 포승에 세 번이나 묶이셨는지
그 정신은 외로운 무덤에 천 년 동안 머무르겠네.
1963년 하지(6월 22일), 제자 이가원 삼가 씀¹²⁾

이 글을 쓴 국문학자 이가원(李家源, 1917~2000)은 조운제와 각별했던 관계로 알려져 있다.¹³⁾ 책의 첫머리를 장식한 이가원의 글은 민족문학 연구와 제자의 양성에 헌신하면서도 사회의 부조리를 외면하지 않았던 조운제의 생애를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내용 중 ‘포승에 세 번이나 묶였다’는 구절은 『도남잡지』에 수록된 자찬묘지명에서 “성품이 세상에 물들지 않았고, 세상 또한 이를 반기지 않아, 화(禍)를 세 차례 입었다(性不染世, 世亦不與, 因而被禍三次)”(『自銘』, 369면)는 구절에서도 반복되고 있다.¹⁴⁾ 이

12) “勛族學箸等身, 膺英髦惠無限, 譚時事裒輪困, 胡爲乎爨然三綬, 意作孤墳千春. 癸卯日南至, 弟子李家源謹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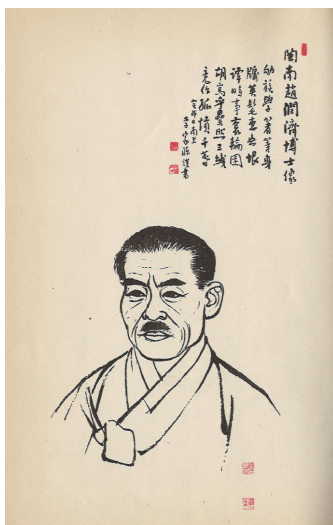
13) 『도남잡지』에는 이가원의 『역주 금오신화』와 『주해 구운몽』에 대한 조운제의 서문이 수록되어 있다. 해당 서문에는 이가원의 번역이 원문보다 낫다거나 그가 작가의 ‘문학혼(文學魂)’을 포착하는 데 이르렀다는 상찬이 확인되어, 이가원에 대한 조운제의 신뢰를 엿볼 수 있다. “옛날에 어떤 호사가가 <구운몽>을 한문으로 번역하여 그 글이 원문보다 낫다는 칭찬이 있더니, 이제 이군이 <금오신화>를 번역하여 그 푸름이 남(藍)보다 더하였음을 나는 알았다”(『이가원 편 <역주 금오신화> 서문』, 359면), “이가원은 일찍 젊은 국문학도로 대학원에 있어 서포를 연구하면서 이 서포의 번민을 알고, 또 그의 문학혼을 그의 작품에서 발견하여, 드디어 그 작품 <구운몽>에 상세한 주해를 가하여 발간하려 한다”(『이가원 편 <주해 구운몽> 서문』, 360면).

14) 두 글에서 공히 등장하는 세 번의 화는 1939년 5월 조선어연구회 사건으로 용산경찰서에서 수일간 불구속 문초를 당한 뒤 거류지가 제한되었던 일, 1950년 6·25 전쟁 당시 인민군에 의해 피검되어 문초를 당했던 일,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피검되어 이듬해 5년 구형을 받은 뒤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었던 일을 가리킨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 1949년 11월에 남북협상 가담을 이유로 불구속 송청되었던 일이 세 번의 화에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는 어느 방면에서나 강개한 태도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던 조운제의 성품을 여실히 시사하고 있다.

이가원의 글이 예시한바, 『도남잡지』에는 엄정한 학자이자 교육자, 실천적 지식인으로서의 면모가 다채로운 양식에 고루 담겨 있다. 1964년에 간행된 이 책에는 1936년 4월에서부터 1964년 2월까지 발표된 총 80편의 글이 5개의 장에 실려 있다. 각 장에는 각각 <논설(論說)>, <학창한화(學窓閑話)>, <고서왕래(古書往來)>, <기장록(騎牆錄)>, <행단잡초(杏壇雜草)>라는 제명이 붙어 있어, 수록된 글들의 성격을 짐작케 한다.

1장 <논설>에는 「시조의 「종장 제일구」에 대한 연구」와 「사녀가 소고(小考)」 두 편이 실려 있다. 이 글들은 1948년



<도남조운제박사상(陶南趙潤濟博士像)>

『조선시가의 연구』가 간행된 이후에 발표된 것으로, 내용적으로 볼 때 사실상 논문에 가까운 글이라 할 수 있다. 단 두 편이지만 별도의 장을 구성하여 책의 선두에 배치했다는 데에서, 수필집의 성격을 지닌 책이라 하더라도 자기 문필의 지향점이 학문에 있음을 명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 중 「시조의 「종장 제일구」에 대한 연구」는 1953년에 발표된 논문으로, 『조선시가사강』¹⁵⁾에서부터 이어져 온 시조 형식에 관한 연구를 집약하면서, 종장 제1음보가 3음절로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에 착목하여 기존보다 한 걸음 진척된 논의를 보여준다.¹⁶⁾ 이 글에서 조운제는 전대절(前大節)·후소절(後小節)이라는 ‘한국 시가형식의 기본이념’이 시조의 초·중장 및

‘포수에 묶였다’는 표현에 가까운 것은 앞서 언급한 세 건이라고 여겨진다. 『도남연보』, 참조. 15) 조운제, 『조선시가사강』, 동광당서점, 1937.

16) 조운제는 “各句의 音數”, “終章 第一句”에서와 같이 율격의 기본단위로서 ‘구(句)’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아직 학계에서 ‘음보(音步)’의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기 이전에 사용되었던 개념으로, 현재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의 행(장)을 두 개로 구분한 단위와 혼동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조운제가 사용한 ‘구’를 ‘음보’로 대체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중장 구성에 구현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하며, 시조의 중장 제1음보가 향가에서 보인 ‘아’류의 감탄사의 변격이자 실사화(實辭化)임을 주장하고 있다.¹⁷⁾ 나아가 시조의 중장 제1음보는 그것이 점한 독특한 위상으로 말미암아 음절수가 가변적인 여타 부분들과 달리 음절을 고정하는 방식으로 특수화된 결과로 보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조운제가 중장 제1음보의 지위와 역할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장 제일구는 초·중장에서 내려 받은 기운을 축적반발(蓄積反撥)하여 제이구의 오(五)에 치밀어 여세는 사(四)·삼(三)의 순으로 차츰 떨어져 시조의 전중량은 온통 중장 제일구에 매어달려 있는 듯”(『시조의 『중장 제일구』에 대한 연구』, 5~6면)하다는 언급은 중장 형식의 특징과 의미에 관한 그의 이론을 집약하고 있다. 이러한 발상은 1940년에 발표된 『시조의 본령』에서 이미 마련되었던 것으로, 해당 글에서는 중장 제1음보가 이후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라고 표현되기도 하였다.¹⁸⁾ 이처럼 『도남잡지』의 첫 번째 글인 『시조의 『중장 제일구』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논의를 발전시켜 중장의 음절 고정 현상을 해명하려는 시도이면서, 시조 미학의 핵심인 중장 제1음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글로서 의미를 지닌다.¹⁹⁾

2장 <학창한화>에는 학문 및 대학교육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15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전반부에는 『한국인의 멋』, 『향가연구에의 제언』, 『시조의 현대적 의의』와 같이 한국문학 및 문화에 대한 사유와 제언이, 후반부에는 『대학교육의 현상』과 같이 대학교육에 관련된 글이 수록되어 있다.

17) 이러한 현상의 근거로는 반드시 5음절 이상으로 실현되는 중장 제2음보가 기실 두 개의 음보로 구분될 수 있기에 중장은 총 다섯 개의 음보로 이루어진 셈이며, 이에 중장 제1음보는 향가의 ‘아’처럼 “일중 덧붙이기인 감”(『시조의 『중장 제일구』에 대한 연구』, 11면)이 있다는 점, 중장 제1음보에 ‘어즈버’, ‘아마도’, ‘두어라’, ‘아희야’ 등의 감탄적 어구가 많다는 점을 들고 있다.

18) “이 운동의 미(美)는 마치 저 고약(高躍)하는 선수가 목적물을 뛰어넘으려고 수 미터 밖에서 마음을 바로잡고 몸을 고누아 가지고 목적물을 향하여 자츰 자츰 걸어오다가 멍호와 같이 발판을 밟아 차고 뛰어 넘어서 아직 그냥 자빠지지 않으려고 넘어 뭘 반동으로 수차 도약하는 것과도 같아, 그 기운이 온 발판인 중장 제일구에 달렸는데, 여기를 기운차게 밟아 차지 않으면 그 목적물을 뛰어넘을 수 없다.” 『한국시가의 연구』, 169면.

19) 후술하겠으나 이와 같은 시조 인식은 그가 직접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에도 일정하게 반영되어 있어, 이론과 창작의 관계라는 측면에서도 눈여겨볼 여지가 있다.

훗날 제자들에 의해 정리된 조운제의 저작 요목에는 『도남잡지』 2장에 수록된 15편 중 9편이 논문으로 분류되어 있는데,²⁰⁾ 그만큼 이 장에 실린 글, 특히 전반부에 수록된 글들은 학술적인 성격을 적지 않게 띠고 있다. 그럼에도 조운제가 이를 ‘논설’이 아닌 ‘한화(閑話)’에 수록한 것은 글의 성격이 실증적 고찰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밝히거나 첨예한 연구사적 논점을 제기하기보다, 대상에 관한 개인적인 생각이나 당대의 연구 풍토에 대한 제언에 가깝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2장에 실린 글은 논문과 수필의 중간지점에 놓여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도남잡지』의 2장은 문학과 학문, 그리고 글쓰기를 대하는 조운제의 태도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 장에서 상당히 빈번하게 등장하는 용어이자 그의 문학과 내지 학문관을 집약하여 보여주는 표현은 ‘인격도야’와 ‘의식적인 생활’이다. 예컨대 문학 창작의 자세를 논한 글에서는 문학의 내용을 곧 작가의 인격과 동일시하면서 “문학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인격도야에 힘을 써서 문학하기 전에 먼저 높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문학하는 마음』, 33면)한다고 주장하며, 날선 비판들이 오가던 학계의 자성을 촉구한 글에서는 학문은 ‘지식’이 아닌 ‘수양’이기에 논문 역시 “지식의 표시가 아니라 곧 인격의 표현”(『비판의 윤리』, 66~67면)임을 강조하고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글에서는 학문의 목적이 ‘앎’보다는 ‘행(行)’에 있으며 그것은 곧 “인격도야일 바 다름없는 것”(『학생과 학문』, 151면)이라 언급하기도 하였다. 한편 지식인이 갖춰야 할 삶의 태도에 있어 조운제는 ‘의식적인 삶’을 특히 강조하였던바, 그 예로 일반 대중들과 달리 작가들은 스스로 연구해 전통을 ‘의식’해야 함을 권한 글을 들 수 있다(『현대문학의 전통론』, 105~106면). 학생들을 향해서도 학문을 하는 이들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넘겨버리는 ‘소설이란 무엇인가’, ‘사람이란 무엇인가’, ‘사상이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지나치지 않는 ‘의식적인 생활’(『학생과 학문』, 152면)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문학과 학문의 진정한 목적은 그것 자체가 아니라, 현실에 무비판적으로 휩쓸리지 않기 위해 올바른 방향을 끊임없이 ‘의식하며’ 나아가는 것이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권계하는 부분이라 하겠다.

20) 최진원·이동영, 앞의 글, 24면.

3장 <고서왕래>에는 제목대로 고서(古書)와 연관된 일화 19편이 실려 있다. 이는 1936년 4월에 『동아일보』, 그리고 1963년 3월부터 9월까지 『현대문학』에 연재된 글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고서를 어렵게 구한 과정이나 책에 대한 애착이 담겨 있어 애서가이자 장서가였던 조운제의 면모를 흥미로운 필치로 묘사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당시 가난으로 인해 자신의 장서 중 『반계수록』을 팔 수밖에 없었던 사연과 해방 이후 이를 다시 사들였을 때의 심경을 “잃었던 자식을 다시 찾은 심정”(『<반계수록>의 환매』, 195면)으로 표현한 부분이나, 책값을 흥정하는 모습을 개탄하며 “나보다는 책이 더 중요하다. 어찌 나를 상대할 것이냐, 책을 상대하라”(『<패림>의 독존』, 199면)며 일갈하는 부분이 대표적이다. 책을 다시 돌려받지 못한 경험들이 많았기에 책을 남에게 빌려주는 일이 너무나 어렵다고 고백한 글(『대서난(貸書難)』)에서는 장서가로서의 인간적인 고뇌가 엿보이기도 한다.

그중 『사성통해(四聲通解)』와 관련된 글(『<사성통해>의 양여(讓與)』)에서는 책이 남의 손에 들어가도 개의치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사례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어느 날 국어학 연구자인 이상헌(李尙憲)이 조운제의 집에 놀러 왔다가 『사성통해』를 보고 몹시 탐을 내더니 『송강가사(松江歌辭)』와 교환할 것을 제안했고 이에 먼저 『사성통해』를 내어주게 되었다. 그러나 이상헌은 끝내 『송강가사』를 구해주지 못했고 조운제 자신의 책은 돌려받지 못하여 결과적으로는 『사성통해』를 빼앗긴 셈이 되고 말았다. 평소라면 귀중한 책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것을 심히 안타까워하거나 애초에 빌려준 것을 자책하였을 법 하지만, 이때 조운제는 “빼앗긴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다. “장서란 쌓아서 감추어두자는 것이 아니고, 감추어서 쓰자는 것”(『<사성통해>의 양여』, 204면)이며, 자신이 가지고 있었다면 ‘사장(死藏)’이었지만 국어학자인 이상헌이 가져갔다면 유용하게 활용하여 ‘생장(生藏)’하는 것이니 그의 소유가 마땅하다는 것이다. 학문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아끼는 물건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열정적인 장서가였지만 그에 앞서 양심적인 학자로 살아온 조운제의 모습이 엿보이는 글이라 할 수 있다.

4장 <기장록>에는 시사평론적 성격의 글 15편이 수록되어 있다. 『지성』 추계호(1958)에 수록되었던 『사고방식』을 제외하면, 이 장에 수록된 모든 글은 1957년 3월에서부터 12월까지 『현대문학』에 발표된 것이다. 장 제목

에 있는 ‘기장(騎牆)’은 조운제의 별호이다.²¹⁾ 이는 두 집 사이의 담에 올라 탄 모양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해진 방향 없이 어느 편도 확실히 들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편향되지 않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세상사를 바라 보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데, 이는 『도남잡지』의 4장에서 특히 견지되는 태도이기도 하다.

그중에서도 ‘기장록’의 지향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글은 『최만리(崔萬理)의 변호』이다. 여기서 조운제는 근래 한글학자들이 훈민정음 반포를 반대 한 최만리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현실을 짚어내며, 과연 최만리가 그들의 주장처럼 “민족문화를 말살하려 한 민족의 반역자”라 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 이를 논하기 위해 그는 최만리의 상소문을 검토하는데, 이를 통해 최만리의 주장이 국문이 전용될 경우 중화로 대표되는 문명으로부터 고립되거나 그로부터 역행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최만리의 우려가 현실화되었을 경우 한국문화의 장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니, 오히려 그의 주장은 타견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이어지는 그의 논지이다.²²⁾ 그런데 이 글은 이처럼 최만리에 대한 옹호로만 일관된 것이 아니라, 세상일이란 양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에 최만리처럼 본의 아닌 과오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제언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당대의 보편적인 생각을 일방적으로 좇지 않고 최만리의 주장이 지닌 타당성과 그의 양심을 인정하는 한편, 자기 양심만을 과도하게 신뢰해선 안 된다는 이 글의 입장은, 무비판적인 삶이 아닌 ‘의식하는 삶’의 태도를 상기하게 하면서 그가 별호로 삼았던 ‘기장자’로서의 균형 감각을 시사하고 있다.

5장 <행단잡초>에는 총 26편의 글과 3편의 부록이 수록되어 있다. 행단(杏壇)이란 공자가 강학하던 곳으로 학문을 닦는 공간을 뜻한다. 이는 조운제의 삶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여, 이 장에서 다루는 시간대와 주제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점을 예고하고 있다.²³⁾ 실제로 수록된 글의 면면

21) 『도남잡지』 수록 자찬묘지명의 “號陶南, 或云騎牆子”(『自銘』, 369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2) 이와 같은 입장에는 세계문화과의 영향 관계 속에서 국문학이 발전해 왔으며 미래에도 발전할 수 있다는, 세계성과 국제성을 강조해 온 조운제의 문학사관이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성과 관련된 관점에 대해서는 류준필, 『도남 국문학사의 근대문학 서술과 근대 인식』, 『고전문학연구』 27, 한국고전문학회, 2005, 178~179면 참조.

을 보면 자신의 서재나 나이, 음식 등에 대한 소박하고도 일상적인 감상에 서부터 6·25 전쟁이나 4·19 혁명과 같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감회, 주요 국문학 연구 저작들에 대한 서문 등, 그의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편 폭의 글들이 확인된다.

그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자신의 삶을 자평한 자찬묘지명(『自銘』)과 <곡장남봉래(哭長男鵬來)>, <지포팔경(芝圃八景)>이라는 제명의 시조들이다. 다음은 자찬묘지명의 내용이다.

(…) 여섯 살에 배움을 시작하여 아홉 살에 “풀과 나무는 대지의 머리카락이 네(草木大地毛)”라는 구절을 지었다. 자라서는 서울로 유학하여 학문에 뜻을 두었다. 30여 년 동안 『한국문학사』를 저술하였으니, 이것이 필생의 사업이었다. 그 사이 여러 세속의 직책을 역임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외도일 뿐이었다. 성품은 세상에 물들지 않았고, 세상 또한 그를 반기지 않았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 차례나 화를 입었다. 슬프도다! 민족에 살고 민족에 죽으니, 무슨 원망이 있겠는가. (…) 그저 어리석은 선비로 사는 즐거움만을 알았을 뿐, 다른 것은 알지 못했다. 명(銘)하기를, “생각하며 살았으나 삶은 고달팠고, 지쳐서 돌아가니 돌아감이 곧 편안함이로다.”²³⁾

위의 내용 중에서도 자신과 세상과의 관계를 ‘물들지 않았고, 반기지 않았다’고 밝힌 부분, 자신의 삶을 ‘민족에 살고 민족에 죽다’라고 자평한 부분은 그가 평생 지켜온 삶의 태도와 지향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4·19 혁명과 5·16 군사 쿠데타 등 시대의 격랑을 통과하면서도 그는 끈기있게 민족을 위한 사업에 헌신하였던바, 그러한 작업이 곧 국문학의 역사를 결산한 『한국문학사』로 집적되었던 것이다.

한편 『도남잡지』에 수록된 시조 2편의 경우, 산문 형식으로는 표현되지

23) 행단은 조선시대에 성균관을 가리키기도 했는데, 이로 보면 조운제가 1950년부터 재직하던 성균관대학교를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이 장에 수록된 글들은 성균관대학교에 재직하기 전에 쓰인 것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직접적인 관련은 확인되지 않는다.

24) “(…) 六歲就學，九歲得草木大地毛句。稍長，遊於京師，志於學問。三十餘年，著有韓國文學史，此爲畢生事業。其間，歷任種種世故之職，此下過外道。而性不染世，世亦不與，因而被禍三次。噫！生於民族，死於民族，何怨之有。(…) 知其愚生之爲樂，他無所知。銘日，思以生，生也艱，倦而歸，歸且安。”『自銘』, 369면.

못했던 조운제의 내면을 읽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조를 중심으로 그가 구축해 온 문학관 및 창작관이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하고 있는지, 나아가 그의 이론과 실체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술하도록 한다.

III. 조운제의 시조관과 자작 시조의 특징

『조선시가가사강』 및 『국문학개설』 등의 주요 저작을 통해 조운제는 문학이란 민족의 생활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문학관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²⁵⁾ 이러한 ‘생활문학론’은 『도남잡지』에서도 표명되는바, 단지 문학의 성격을 설명하는 데 국한되지 않고 문학 연구의 목적이나 문학의 가치와도 결부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향가를 연구하는 목적은 이 문학을 통해 그 시대의 생활을 이해하자 함”(『향가연구에의 제언』, 82면)이라거나, 역사를 창조하는 힘이자 민족의 전통적인 정신은 “민족생활 그 자체에 있는 것이며, 그 생활을 표현·묘사한 문학에서 볼 수 있는 것”(『고전문학의 의의와 그 학습』, 94면)이라는 언급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민족의 생활을 담아낸 문학이야말로 역사를 창조하는 힘의 원천이라는 생각은, 곧 그러한 문학만이 역사를 창조할 수 있으며 민족적 가치를 지닌다는 논리를 내포하고 있다.

이로써 문학은 민족의 생활을 ‘담는 것’이 아니라 ‘담아야 하는 것’이 되며, 문학에 관한 사실적 이해는 문학의 사명 내지 당위적 판단으로 전환된다. 조운제가 보기에 이와 같은 원칙은 고전문학에는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지만(『고전문학의 의의와 그 학습』, 94~97면) 문제는 현대문학의 경우

25)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 중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 시가사(詩歌史)는 크게 말하면 과거 우리 생활 일부의 변천을 편록한 역사라고도 하겠고, 적게 말하면 운율적 생활의 일부 문학사라 하겠다”(『조선시가가사강』, 2면), “국문학은 실로 작자를 통해 민족의 생활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문학의 작품은 하나하나가 민족의 생활사 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니 국문학은 곧 하나의 민족의 생활사다”(『국문학개설』, 544면), “생활은 어디까지나 살아 있는 것이고, 이 살아 있는 생활을 표현한 문학도 또한 살아 있는 것이니, 문학사는 모름지기 그 『삶』의 연속체가 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한국문학사』, 1~2면).

였다. 『문학의 문학』에서 조운제는 근자에 발표되는 현대문학 작품을 읽어 보고 적잖은 고통을 느꼈다면서, “솔직히 말해서 나는 현대의 문학을 잘 모르겠다”고 고백하고 있다(『문학의 문학』, 269~270면). 그는 이러한 모습이 문학 연구자로서 일견 부끄러운 일일 수 있지만, 사실 문제는 우리의 생활은 표현하지 않으면서 외래의 문학사조만을 담아내기 급급한 동시대 문학 자체에 있다고 진단하기에 이른다.²⁶⁾ 이에 더하여 조운제는 그가 접한 현대문학을 민족의 생활이 제거된 채 ‘문예사조를 위한 문학’ 내지 ‘모방주의의 문학’으로 규정하며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²⁷⁾ 물론 그가 이러한 문학의 존재와 가치를 전적으로 부인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외래의 문학사조가 한국인의 생활과 합치되지 않음을 우려하며 “문학은 어디까지나 생활의 표현”이라는 선언으로 글을 맺고 있다는 점은 주의 깊게 살필 만하다. 문학은 당대인의 생활을 담아내야 한다는 그의 지론이 동시대 문학이라는 사례를 경유하여 재차 강조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조운제는 문학이 당대의 생활을 적실하게 담아내기 위해서는 그에 적절한 형식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형식에의 강조는 시가 형식에 대한 그의 관심과 맞닿아 있는 것이기도 하다. 문학이 특정한 시대의 생활을 표현했다고 할 때 그것은 그 생활과 합치되는 문학적 형식이 존재했음을 의미하는바, 이는 『시조의 현대적 의의』에서 논한 시조사(時調史)

26) 『문학의 문학』이 처음 수록된 지면은 1957년 12월에 간행된 『현대문학』 36호이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외래의 문학사조란 구체적으로는 1950년대에 발흥했던 실존주의 사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현대의 문학은 시대의 현실적인 생활을 표현한다는 것보다는 도리어 어떤 문학사조의 연역에 급급하는 경향이 다분히 있는 것 같다. 이를테면 근자 ‘실존주의’라는 문학사조가 불란서에서 일어나 세계에 그 사조가 전파되어, 우리나라에서도 그 사조가 들어와 생활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오직 그 사조에 합치될 문학을 쓰는 데만 열중하고 있거나 않나 한다”(『문학의 문학』, 271면). 실제 생활과 유리된 문학에 대한 문제의식은 『한국문학사』에서 1920년대 초반 소설에서의 자연주의·사실주의 및 시에서의 퇴폐주의·낭만주의 사조를 평가하는 대목에서도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다. “냉정히 생각하여 보면 그것은 무엇이든 우리 인생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 일인가. 재미나는 소설을 쓰고 화려한 시를 썼다면 혹은 그것은 문학으로서는 성공하였을지 모르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문학을 위한 문학이지 우리의 인생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한국문학사』, 532면).

27) “현대의 문학은 단순히 시대의 현실적인 생활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문예사조의 해석이요 또 그 구체적인 설명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문예사조를 위한 문학, 즉 문학의 문학이라고도 할 수 있다. (...) 오늘날 우리들이 모두 현대문학을 모르겠다 하는 것은 곧 그 문학의 사조가 아직 우리에게 생활화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니 단순한 모방주의의 문학, 문학의 문학은 아직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문학의 문학』, 271~272면.

의 전개 과정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이 글에서 조운제는 문학사에 등장한 이후 조선인의 생활에 합치되는 양식으로서 크게 발흥하였던 시조의 전개 과정에서, 그 세력이 위축되었던 결정적 지점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산문정신의 대두와 팽창’이다. 근세(近世) 이후로 “사람의 생활은 한없이 사실적으로 즐달음치고, 시대의 정신은 완전히 산문적이어서, 우아한 정형시를 읊는다는 것은 너무나 창연하고, 시대인(時代人)에 맞지 않”(『시조의 현대적 의의』, 86면)게 되었다는 것이 조운제의 판단이다. 이에 시조는 과거의 전통과 전형을 타파하여 사설시조를 창안하였으나, 이는 전형적 정형시로서의 정체성을 잃은 잔재에 불과하여 사실상 그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보았다. 시조가 맞이한 두 번째 위기는 ‘서양문학의 유입’이다. 이 충격으로 말미암아 소설은 신소설(新小說)로 약진하고 시의 경우엔 신시(新詩), 즉 자유시가 탄생하여 문학사를 전면적으로 재편하게 되었으며, 이전 시기에 이미 생명력을 상실했던 시조는 이러한 ‘자유시의 시대’에 완전한 퇴장을 준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비록 최남선 등의 문인들이 시조부흥운동을 제창하면서 시조가 문단에 재등장하였지만, 조운제가 보기에 그것은 ‘정치적인 민족운동을 위한 도구’에 가까웠기에 시대의 문학으로서의 의의는 찾을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처럼 전근대인의 생활 표현에 적합했던 낡은 형식으로는 현대인의 생활과 감정을 소화할 수 없으며, 현대인의 생활은 길이와 율격의 제약에서 벗어난 ‘자유시’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지는 『시조의 현대적 의의』가 발표된 1959년보다 20여 년 전, 현대시조 작가들이 본격적으로 문단에 등장하던 시점에 단초가 마련된 것이기도 하다. 1940년 2월에 발표되어 이후 『한국시가의 연구』(1948)에 수록된 『시조의 본령』에서 조운제는 ‘짧은 정형시’인 시조가 현재의 문학으로 편입되기 어려운 태생적인 한계를 분명하게 짚어내고 있다.²⁸⁾ 주목되는 점은 이와 같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자유시에 비해 시조가 지닌 “독특한 표현미”를 활용하고 그에 적합한 “내용”을 갖출 수만 있다면, 즉 특정한 형식 및

28) “시조는 무엇보다도 그 형식에 있어 너무 짧아 현대인의 복잡하고 미묘 세세한 감정을 도저히 다 담을 수 없을 것이고, 또 시조의 그 규칙적 운조(韻調)가 현대인의 자유스러운 감정을 표현함에는 암만하여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한국시가의 연구』, 186면.

내용적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라면 현대문학의 일원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내비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 위에서 조운제는 당대 가장 활발하게 창작 활동을 전개한 이은상(李殷相, 1903~1982)의 『노산시조집』(1932)과 이병기(李秉岐, 1891~1968)의 『가람시조집』(1939)을 논평하며 시조가 지닌 현대문학으로서의 가능성을 가늠하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실망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은상 시조의 경우, 시조의 고조(古調)를 잊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운조(韻調)를 창출하였다고 고평하였으나, 1수로 시상이 완결되지 못하고 2수의 내용이 계기적으로 연결된 <은선대>나 <십이폭>과 같은 작품²⁹⁾에 대해서는 일종의 “병”이자 “시조로 보아서는 다시 허할 수 없는 오류”(『한국시가의 연구』, 191면)로 지적하고 있다. 이병기 시조의 경우에도 <그 뜻>과 <그리운 그날> 등³⁰⁾을 예로 들며 2수 이상이 이어진 형식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이에 더해 3·4가 반복되는 기본적인 운조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시조로서의 미학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운제가 특히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은 복수의 연이 연결되어 유기적인 의미를 구성하는 이른바 ‘연격식(聯格式) 시조’의 형태이다.³¹⁾ 시조의 정형성은 자수와 관련된 율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한 수

29) “隱仙臺 우러보나 綠衣仙郎 인곳없고 / 白玉 峯頭에 靑雲만 나비끼네 / 그옛날 보시단분도, 저를 이름 아니든가”, “山頂에 올라서니 솔마다 香風인데 / 문득 듣노라니 이分明 玉笛로다 / 내아까 仙郎을 잘못보아 靑雲이라 하였든가”(〈隱仙臺〉). “열두물 한줄기로 떠러지니 一長瀑을 / 一長瀑 열두段에 꺾었으니 十二瀑을 / 하나라 열둘이라함이 다웁은가 하노라”, “열둘로 보자하니 소리가 하나이오 / 하나로 듣자하니 景概아니 열둘인가 / 十二瀑 묻논이있으면 듣고보라 하리라”(〈十二瀑〉). 『한국시가의 연구』, 189~190면에서 재인용.

30) “외오 두고 두고 그리워 하는 그대 / 다만 믿어 오기 고운 그 맘이러니 / 이예야 보는 얼굴도 맘과 다름 없구나”, “그리 아오실이 몇몇이나 있으리요 / 머리를 조오고 간절히 비웁노니 / 처음에 맹서하시든 그뜻 잊지 마오리”(〈그 뜻〉), “병아리 어이 찾아 마당가에 뱅뱅 돌고 / 실영위 어린 누에 한잠을 자고 날때 / 누나는 나를 다리고 뺨을 따러 나가오”, “누나는 뺨을 따고 집으로 돌아가도 / 금모래 은모래 쥐었다 놓았다 하고 / 나혼자 발머리 얹아 해지는 줄 모르오”, “수나기 三兄弟가 차례로 지나가고 / 언덕밑 웅달샘에 무지개 다리 노면 / 仙女들 머리 감으려 내려옴을 바라오”(〈그리운 그날〉). 『한국시가의 연구』, 192~193면에서 재인용.

31) 현대시조 시인들이 사용한 양식은 『시조의 현대적 의의』에서 “새로운 연시조”로 지칭되기도 하였다(『시조의 현대적 의의』, 89면). 그런데 ‘새로운’이라는 수식어에서 보듯, 여기서의 연시조는 맹사성의 <강호사시가>나 이황의 <도산십이곡>과 같은 전통적 시조의 한 양식과는 무관한, 앞서 이은상이나 이병기가 사용하였던 연격식 시조를 지칭한 것으로 보아야

의 3장 내에서 반드시 시상이 완결되는 데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시조의 생명과도 같다는 시조관이 현대시조에 대한 비평 과정에서 재차 강조되었던 것이다. 이를 벗어난 시조 창작은 시로서는 아름다울지라도 시조의 역사성과 정형시로서의 가치를 무시한 ‘탈선’이자 ‘실패’에 불과한 것이었다. 또한 조운제에게 시조의 형식은 정형시로서의 조건이나 미의식의 구성요소만이 아니라 향가에서부터 뿌리내려온 민족 고유의 전통과 생활이 투사된 산물이자 일종의 이념이었던바, 이를 경시하는 것은 민족 문학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로도 여겨졌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인의 ‘복잡 미묘하고 섬세한’ 감정과 생활(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단형의 정형시라는 시조의 본질(형식)을 포기해야 하고, 시조의 본질을 지키면서는 현대인의 삶을 담아낼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조운제는 시조의 한계를 인정하고 문단 문학이 아닌 고전 교양의 차원에서 시조의 교육과 창작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다.³²⁾ 『시조의 본령』이 발표된 시점 이후 20여 년이 경과하여 『시조의 현대적 의의』를 발표한 무렵에도 조운제는 시조가 생활의 문학이자 현대의 문학으로서 온전히 기능할 수 있으리라고 낙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은상과 이병기 이후 더 이상의 발전적 계승이 부재했다는 진단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도남잡지』에는 위와 같은 논증이 제기된 한편으로, 그가 직접 창작한 시조들이 함께 수록되어 있어 주목을 요한다. 현대에 있어 시조의 무용(無用)을 논하는 동시에 스스로 시조를 짓는 모습은 언뜻 모순된 일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시조에는 독특한 표현미가 있으며 그것은 도저히 자유시로서 감당하지 못할 점이 있다. (…) 어떤 내용에 이르러서는 어느 시형보다도 더 잘 그를 표현할 수 있다.”(『한국시가의 연구』, 186면)라는 언급을 상기한다면, 비록 한계는 분명하되 특정 조건이 만족될 경우에 한해서는 시조 창작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일정하게 자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생각한 창작의 조건은 기존 논의들에 비추어 볼 때 형식과 내용의

한다.

32) “이로 보아 시조와 같은 짧은 시형을 가지고는 도저히 복잡하고 미묘 섬세한 감정을 일수로써 표현한다 함이 무리하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 결론은 시조가 다른 형식의 시와 아울러 서서 우리의 현대적 생활을 표현할 능(能)이 없다는 것이 빠를 것이다.” 『한국시가의 연구』, 197~198면.

양 측면으로 구체화해 볼 수 있다. 우선 형식에 해당하는 ‘독특한 표현미’란 ‘연격식 시조’나 사설시조와 같은 변격을 지양하면서, 정형시로서의 율격을 준수하고 하나의 시상을 하나의 수(首)로 완결하는 데 토대를 두고 있다. 이에 더해 『시조의 『종장 제일구』에 대한 연구』 등에서 강조되었던바, 종장 제1음보가 지닌 시적 기능 및 효과의 적절한 활용을 들 수 있다. 한편, 또 다른 조건인 ‘어떤 내용’의 실제란 “복잡미묘한 현대적 생활”과는 무관한 민족 고유의 삶과 의식을 의미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그가 누차 한국 문화의 특징으로 지적해 온 ‘은근’과 ‘끈기’, 혹은 ‘애처럼’과 ‘가냘픔’이 반영된 주제나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³³⁾

이상의 조건들은 『도남잡지』에 실린 조운제의 시조들에 일정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살펴볼 작품은 <곡장남봉래(哭長男鵬來)>이다. 이 시조는 1929년에 태어나 9세의 나이로 요절한 아들 조봉래(趙鵬來, 1929~1937)를 향한 만시(輓詩)에 해당한다.

여기와 거기가
 멀다해도 곧이런만
 어찌면 그렇게도
 철벽같이 막혔으랴
 鵬來야 이리고 그리알줄
 몰랐더냐 너조차

표면적으로는 6행으로 나뉘어 있으나, 기실 2행이 하나의 장(章)을 이루고 있어 형식상 3장 구성의 단시조에 해당한다. 초장에서 화자는 ‘여기’(이승)와 ‘거기’(저승) 사이의 거리가 멀다고들 하지만, 오래지 않아 곧 도달할 수 있다고 여긴다. 이러한 생각은 아무리 거리가 멀다 해도 쉬지 않고 간다

33) “애처럼은 슬픈 것이 아니다. (...) 우리의 마음을 한량없이 가라앉히고 조용히 하고 또 실낱 같이 섬세하게 하는 것이니 마치 가을 달밤에 멀리 들리는 버리지 소리 같은 것이다. 그리고 가냘픔은 가늘고 얇다는 말인데 역시 섬세한 뜻이 있고 동시에 청초한 뜻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애처롭고 가냘픈 문학이란 현실에 국척(蹶躅)하지 않고 영원을 동경하며,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내세를 사모하는 문학이라 하겠으나, 여기는 어딘지 고적하고 쓸쓸한 데가 있으면서 또 그 고적이 도리어 깨끗하고 순진한 맛이 있는 것도 같다.” 『국문학개설』, 489~490면.

면 ‘거기’에 곧 도착할 수 있다는 믿음이 반영된 것으로, 자신의 간절한 노력으로 생사 간의 거리를 지워 한시라도 빨리 아들을 보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중장에서 이러한 기대는 좌절되고 만다. 초장에서서는 거리만이 시야에 들어왔지만, 두 세계가 원천적으로 가로막혀 있다는 진정한 문제가 중장에 와서 드러났던 것이다. 여기서 갑작스레 등장한 ‘철벽’의 차갑고 단단한 이미지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한 화자의 내면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달한 종장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외침으로 시작된다. 종장 제1음보는 조운제가 누차 강조했듯 시조 전체에서 무게감이 가장 집중된 곳이면서, 초·중장을 거치며 응축된 정서가 폭발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 점을 반영하여 작품은 해당 자리에 아들의 이름을 마치 감탄사처럼 배치함으로써 애타는 부정(父情)을 극대화하여 표현해 내고 있다. 아울러 전체적으로 명사의 활용이 극히 제한된 상황 속에서, 종장 첫머리에 자리한 아들의 실명은 마치 안개 속에 우뚝 나타난 바위처럼 그 의미가 특별하게 강조되는 효과를 낳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종장 제1음보의 “鵬來야”라는 외침은 조운제가 강조해 온 시조 종장의 형식미를 인상적이고도 정확하게 구현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다음 구절인 “이러고 그리알줄”은 ‘이렇게 그리워할 줄’ 정도로 해석되는데, 이후의 구절이 ‘몰랐구나’라는 탄식적 독백이 아니라 “몰랐더니 너조차”라는 아들을 향한 발화로 이어진다는 점이 독특하다. 이 부분에 생략된 내용을 부기하면 해당 구절은 ‘이렇게 그리워할 줄 [나는 몰랐는데, 어찌하여 잘 안다고 생각했던] 너조차 [이런 그리움을] 몰랐더니’ 정도로 해석된다. 문제는 이미 세상을 떠난 아들이 그리움에 무더졌으리라 믿었으나, 실상은 아들 또한 자신만큼이나 예기치 못한 그리움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것이다.³⁴⁾ 이 지점에서 화자의 슬픔은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넘어, 먼저 떠난 아들 역시 저편에서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고 있다는 깨달음과 그로 인한 고통으로 심화된다. 초·중장에서 아들과 물리적으로 단절되었던 화자는

34) 이 작품의 창작 시점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아들을 잃은 직후인 1937년에 창작되었을 수도 있지만, 세상을 떠난 아들이 이미 그리움에 무더졌을 거라는 화자의 짐작에 착목해 본다면, 아들을 잃은 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이후에 창작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은가 한다.

종장에 이르러 아들과 감정적으로 연결되지만, 그러한 연결이 더 깊은 슬픔을 불러오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곡장남봉래>는 가족의 상실이라는 보편적이고도 전통적인 주제를 다루는 가운데, 답답한 어조 속에 잠복해 있는 단절의 이미지와 비극적 인식을 통해 아들을 잃은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자신의 사연과 감정을 구구절절하게 늘어놓지 않고 함축과 생략을 통해 드러내는 모습은 전통적인 미감 중에서도 ‘은근함’과 ‘애처림’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진다. 전체적으로 시조의 보편적인 형식을 정확하게 준수하는 한편, 종장 제1음보에 아들의 이름을 배치함으로써 시조 형식이 지닌 독특한 미감을 선명하게 드러낸 것도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작품은 <지포팔경(芝圃八景)>이다. 이는 조운제가 전쟁을 피해 고향에 머물던 1951년 봄(“辛卯新春”)에 지은 작품이다. 다음은 창작 배경을 밝힌 서문이다.

지포(芝圃)는 지보(知保)의 별칭이니, 내가 태어난 곳이다. 지난해 연말에 서울에서 난리를 만나 이곳으로 화를 피하여 수개월 동안 머물렀다. 일찍이 선조께서 한가로이 노니시던 땅을 밟아보고 어린 시절 뛰놀던 곳도 돌아보니, 그 산수의 빼어난 경치를 사랑하면서도 이름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겼다. 이에 이름을 짓고 노래를 지으니 다음과 같다.³⁵⁾

1950년 6월에 6·25전쟁이 발발하자 조운제는 그해 12월에 서울을 떠나 고향인 경북 예천군 지보면 지보리로 피난한다. 이때 조운제는 두 아들만 데리고 남하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가족들이 서울과 부산 등지로 흩어지게 되었다. <지포팔경>은 바로 그다음 해에 창작된 작품으로, 서문의 평이한 어조와 달리 당시 그의 내면에는 민족상잔과 가족의 이산으로 인한 고뇌가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고향의 산수는 현실의 시름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공간으로, 전에 없이 각별한 의미가 되어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포팔경>은 총 8수로 구성된 연시조이다. 연시조 형식은 일견 이은상

35) “芝圃知保別號，余之胎生之地也。昨年歲暮遭遇亂京兆，避禍于此，滯留數月。既踏祖先優遊之地，與兒時嬉遊之處，愛其山水之勝，而恨其景之無名。命之歌之，如左焉。”『芝圃八景』，314면.

과 이병기의 작품을 비판적으로 논하며 그 주된 이유로 2수 이상의 작품들이 연결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던 기존의 입장과 상충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연시조의 경우 한국문학사에 전통적으로 존재해 온 양식이었을 뿐 아니라 각 수가 독립적인 의미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가 지적했던 현대시조들과는 상이한 양식에 해당한다. 이렇게 본다면 연시조로 창작된 <지포팔경>은 시조의 본질에 있어 중요한 것이 단시조 형식의 준수 여부 자체가 아니라 하나의 시상이 하나의 수 안에서 완결되는 원리임을 시사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작품은 <태을포월(太乙抱月)>, <불타운(佛陀雲)>, <봉산초가(鳳山樵歌)>, <낙강어적(洛江漁笛)>, <기린망조(麒麟望照)>, <와우관농(臥牛觀農)>, <학강문진(鶴江問津)>, <지보만종(知保晚鐘)>의 제명을 지닌 시조들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에서 밝힌 대로 각 수는 지보면에 자리한 승경과 그에 대한 감흥을 노래하고 있다. 팔경을 지정한 것은 소상팔경(瀟湘八景)에 기인한 팔경시(八景詩)의 맥락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太乙抱月

太乙山이 불쑥솟아 左右로 뻗어내려
靑龍되고 白虎되어 明堂을 얻었는데
밤중만 달 떠오르니 白玉京을 이루다

제1수는 태을산의 정경을 묘사하였다. 초장의 전반에서는 우뚝 솟은 산의 높이를, 후반에서는 좌우로 뻗은 산의 넓이를 통해 그 웅장한 경관을 형용하고 있다. 이후 초장의 ‘불쑥’과 ‘뻗어’에서 시작되어 중장의 ‘청룡’과 ‘백호’로 이어지는 시어들은 산세를 역동으로 묘화하면서 ‘명당’이라는 선언에 명분을 부여하고 있다. 이어진 중장의 첫머리를 통해 시간적 배경은 밤으로 전환되고, 달이 떠오른 태을산의 풍경을 옥황상제의 거처인 백옥정에 빗대며 작품이 마무리된다. 전체적으로 초·중장이 태을산의 역동적인 산세를 형상화했다면, 중장에서는 그 위로 비치는 달빛을 통해 고요한 정취를 드러내고 있어 정동(靜動)의 균형과 대비가 돋보이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이어지는 제2수와 제3수는 제1수와 마찬가지로 주변의 산봉우리들을 묘

사하고 있다.³⁶⁾ 다음의 제4수는 낙동강 주변의 풍경으로 시아가 이동한다.

洛江漁笛

洛東江 휘몰아洞里 밖을 싸고 흘러
굽이굽이 이룬 景은 一幅 그림 되어있고
달밤에 漁夫 피릿소리 남의 애를 끊노라

마을을 두른 낙동강 줄기가 굽이굽이 흐르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표현되고 있다. 앞선 제1수와 마찬가지로 종장 첫머리에서 시간적 배경은 달밤으로 이동한다. 초·중장이 시각적 이미지로 구성되었다면 종장은 청각적 이미지가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분명한 대조를 이룬다. 또한 초·중장이 자연의 경관을 묘사한 데 반해, 종장에서는 어적(漁笛) 소리를 통해 화자의 애끊는 감정을 드러내고 있어 선경후정(先景後情)의 구도가 명확하게 드러나기도 한다. 한편으로 이 작품은 전통적인 시조의 요소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되는 바가 있다. 강 위에서 맞는 달밤의 정취는 전통적으로 시조에서 흔히 등장하는 주제이며,³⁷⁾ 종장의 “남의 애를 끊노라” 역시 일종의 관용구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빈번하게 등장하는 표현이기 때문이다.³⁸⁾ 이는 창작 과정에 있어 고전의 유산, 혹은 전고를 전면적으로 활용하며 시조 고유의 고전적인 미감을 확보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후 제5수는 태을산과 비봉산, 낙동강을 아우르는 풍경을 제시하였으며,³⁹⁾ 제6수는 와우대(臥牛臺) 위에서 마주한 넓은 들과 농부들의 농가

36) “佛陀의 어진 峯이 靑龍 넘어 솟아올라 / 마을의 安泰를 빌기도 하려니와 / 여름에 白雲을 吐하여 萬壽峯을 짓노다”(〈佛陀雲〉), “飛鳳山 높은峯이 洞口밖에 솟아있어 / 허리에 안개도니 비온다고 이르네 / 아희야 樵夫의 노래는 어느 골서 들리나”(〈鳳山樵歌〉).

37) 김광욱(金光煜)의 “秋江 별근 돌에 一葉舟 혼자 저어 / 낙대를 썰쳐 드니 자는 白鷗 다 놀란다 / 어되서 一聲 魚笛은 조차 興을 돕느니”, 월산대군(月山大君)의 “秋江에 밤이 드니 물결이 초노미라 / 낙시 드리치니 고기 아니 무노미라 / 無心흔 들벗만 싹고 빈 비 저어 오노라” 등이 대표적이다.

38) “空山이 寂寞흔되 슬피 우는 저 杜鵑아 / 蜀國 興亡이 어제 오늘 아니어늘 / 至今히 피나게 우리 暈의 애를 긋나니.”, “閑山섬 돌 불근 밤의 戍樓에 혼자 안자 / 큰 칼 녀피 츄고 기픈 시름 흔는 적의 / 어되서 一聲胡茄는 暈의 애를 긋느니”(『청구영언』), “꿈이 정녕 허시로다 임이 왔다 가단 말가 / 제 정녕 왓게드면 흔적이나 뵈련마는 / 지금에 제 아니 오고 暈의 影”(『남훈태평가』) 등이 있다.

39) “太乙에서 놀란 麒麟 鳳山으로 들라다가 / 大江이 가로막아 자즈리쳐 돌치랄체 / 西山에 저

(農歌)를 다루고 있다.⁴⁰⁾ 대체로 작품의 시야가 상하로 확장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이어진 제7수 역시 누정에 올라 강가를 내려다보는 시선을 취하고 있다.

鶴江問津

鶴江亭 높이 올라 洛東江 굽어보니
 흰 모래 맑은 물에 해오라비 즐고 있고
 나루에 배 한 척 있어 오고 갈 이 기다리다

학강정에 올라 바라본 낙동강의 정경을 노래한 시조이다. 흰 모래와 맑은 물, 해오라비와 같이 모두 흰빛을 머금은 경물 위로 나루에 정박된 배 한 척이 시야에 들어온다. 오고 갈 이를 기다리는 빈 배의 형상은 일면 서글픔이나 고독한 감정을 자아내기 쉽지만, <학강문진>에서 이 배의 모습은 앞서 나열된 자연물과 같이 고요한 강가의 풍경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따름이다. 이로써 작품은 낙동강 주위의 풍경을 한 폭의 문인화처럼 최소한의 사물과 색으로 소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은 국문학의 특질로 지적했던바,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하게 만들어 섬세하게 하는 ‘애처림’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작품은 지보면의 종소리를 묘사한 제8수 <지보만종>로 이어지며 마무리된다.⁴¹⁾

창작 시점을 고려하며 내용을 되짚어 본다면 <지포팔경>에는 6·25 전쟁이라는 시대상과 그에 연루된 가족 이산 등의 현실이 소거되어 있음이 포착된다. 이와 같은 양상은 시조가 “복잡미묘한 현대적 생활”을 형상화할 수 없다는 그의 지론이 투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혼란한 시대의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다 해도 조운제에게 있어 시조라는 문학이 담아낼 수 있는 ‘생활’이란 당대인으로서의 체험적이고 현실적인 삶이 아니라 조선조에 융성했던 강호시조에서 간취되는 이상적이고 전원적인 삶에 가까웠던 것으로

너나우리치니 갈길몰라 하노라”(〈麒麟望照〉).

40) “臥牛臺 올라 앉아 사면을 둘러보니 / 沃土萬頃 넓은 들에 百穀이 豊盛하고 / 農夫의 감배 기소리 여기저기 들리네”(〈臥牛觀農〉).

41) “佛里基 마을이름 부쳐困해 불러있고 / 知保의 땅이름이 절로 좇아 생겼으니 / 知保庵 늦은 鍾소리 아직 귀에 새롭네”(〈知保晚鐘〉).

보인다. ‘문학은 민족의 생활을 표현해야 한다’와 ‘시조는 현대적 생활을 표현할 수 없다’는 두 가지 명제를 앞에 두고, 조운제는 ‘민족의 생활’을 현대적 생활(감정)과 전통적 생활(감정)로 이원화하고 시조가 취할 수 있는 길을 후자로 제한했던 셈이다. 결과적으로 <지포팔경>에서 확인되는 조운제의 시조 인식은 현대의 문학으로서 시조가 구현할 수 있는 주제를 한정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경계를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시조의 미학적 이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창작 가능한 영역을 최대한 확보하려 했던 시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강조해 온 시조 미학의 핵심인 형식의 측면에서 본다면, <지포팔경>은 앞서 살핀 <곡장남봉래>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시조 율격을 정확하게 준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각 편은 초·중장과 종장의 시상이 확연히 전환되거나 구분되는 양상을 보여주는데, 이는 특히 제1수와 제4수 등에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시조의 『중장 제일구』에 대한 연구』에서 논하였던, 시조의 전체 구성이 초·중장과 종장의 두 부분으로 분단된다는 원리를 적용한 결과로 보인다. 아울러 <지포팔경>은 8수의 작품들이 모인 연시조 양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각 수가 서로 다른景物과 경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시선의 이동 정도가 미세하게 감지될 뿐 각 수 사이의 유기적인 연결은 직접 확인되지 않는다. 표면적으로는 조운제가 비판했던 ‘연격식 시조’와 유사해 보일지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이상에서 확인한바, 『도남잡지』에 수록된 <곡장남봉래>와 <지포팔경>은 조운제 자신이 평생에 걸쳐 연구한 전통적인 시조의 미학을 실제 창작에 적용한 문학적 실천의 사례로서 의의를 지닌다. 이는 ‘낡은 시형’이 되어 버린 시조가 그 미학적 이념과 정수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인의 생활을 담아낸 문학으로서 어떻게 존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나름의 방식으로 모색한 결과라 여겨진다. 결과적으로 이 작품들은 개인적인 사유와 감정을 표현한 문학 작품의 경계를 넘어, 평생에 걸친 그의 학문적 업적을 또 다른 방식으로 완성하는 텍스트라 할 수 있다. 그는 학술의 틀을 벗어난 글을 모두 자신의 외도라 치부하였지만, 그 외도 역시 결국 정도(正道)와 합류하고 있었던 것이다.

IV. 결론

본고는 그간의 연구사에서 주목되지 못했던 『도남잡지』를 집중 조명하여 조운제의 삶과 시조 문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자 하였다. 『도남잡지』는 조운제의 저술 중 학술서나 교과서가 아닌 유일한 사례로서, 그의 학문적 성취 이면에 자리한 삶의 궤적과 인간적인 내면, 실천적 지향, 문학적 의식 등을 가까이 들여다볼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 총 5개의 장에 나누어 수록된 글들은 학술 논문에 가까운 것부터 문학 및 학문에 관한 논설, 시사평론, 고서나 개인사에 관한 수필, 각종 서문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채로운 내용과 양식을 포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가 평생 견지했던 학자로서의 엄정한 태도는 물론,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던 지식인이자 교육자, 지극히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을 겪기도 하는 생활인으로서의 면모를 두루 확인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도남잡지』에 수록된 자작 시조 2편은 그가 평생에 걸쳐 연구한 시조의 미의식을 실제 창작을 통해 구현한 사례로서 주목을 요한다. 그의 시조는 ‘짧은 정형시’라는 형식을 고수하며 사벌의 슬픔이나 강호한정과 같은 보편적이고도 전통적인 주제를 형상화함으로써, 다른 시형이 대체할 수 없는 시조만의 고유한 문학성을 구현해 내고 있다. 이는 이미 ‘낡은 시형’이 되어버린 시조가 그 미학적 이념과 정수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인의 생활을 담아낸 문학으로서 어떻게 존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모색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도남잡지』에서 확인되는 이러한 작업은 다른 글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조운제의 작가적 면모를 시사하는 동시에, 그의 시조관이 박제된 이론에 머물지 않고 실제 창작의 층위에서 실현된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고는 『도남잡지』의 구성과 내용을 통해 그 의의를 규명하려는 시도로써 마련되었다. 논의를 심화하며 본격적인 도남학(陶南學)의 차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본고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글과 『도남잡지』가 발간된 1964년 이후에 발표된 글로도 시야를 넓혀, 삶과 학문의 궤적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관련 논의는 후속 연구를 기약한다.

참고문헌

1. 자료

조윤제, 『도남잡지』, 을유문화사, 1964.

2. 단행본

도남조윤제박사고회기념논총간행위원회 편, 『도남 조윤제 박사 고회기념논총』, 형설출판사, 1976.

조윤제, 『조선시가가사강』, 동광당서점, 1937.

_____, 『한국시가의 연구』, 을유문화사, 1948.

_____, 『국문학개설』, 동국문화사, 1955.

_____, 『한국문학사』, 동국문화사, 1963.

3. 논문

김명호, 『조윤제의 민족사관에 대한 신고찰』, 『한국학보』 4, 일지사, 1978, 63~90면.

_____, 『도남의 생애와 학문 - 민족에 살고 민족에 죽다(生於民族, 死於民族)』, 『고전문학연구』 27, 한국고전문학회, 2005, 23~64면.

류준필, 『도남 국문학사의 근대문학 서술과 근대인식』, 『고전문학연구』 27, 한국고전문학회, 2005, 167~187면.

_____, 『『조선시가가사강』의 학술사적 의의를 다시 묻다』, 『국문학연구』 25, 국문학회, 2012, 257~271면.

_____, 『조윤제 한국문학연구의 연구사적 의의 - 시가 연구를 중심으로』, 『애산학보』 49, 애산학회, 2022, 195~218면.

박노준, 『『한국시가가사강』 살펴 읽기』, 『도남학보』 20, 도남학회, 2004, 83~109면.

박슬기, 『도남 조윤제의 조선 시가사 기획 - 형식의 역사화, 역사의 형식화』, 『개념과 소통』 19, 한림과학원, 2017, 39~64면.

성기욱, 『한국 시가 연구와 도남』, 『고전문학연구』 27, 한국고전문학회, 2005, 119~162면.

이동영, 『조윤제의 『한국문학사』 검토』, 『도남학보』 20, 도남학회, 2004, 37~57면.

임경화, 『식민지하의 <조선시가가사>의 형성 - 조윤제 『조선시가가사강』을 통해 본 식민지 스티그마의 재해석』, 『일본연구』 3,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2004, 7~30면.

임형택, 『한국근대의 국문학과 문학사 - 1930년대 조윤제와 김태준의 조선문학연구』,

- 『민족문학사연구』 46,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1, 196~215면.
- 장문석, 『문학이란 무엇인가 - 도남 조윤제와 가람 이병기의 해방 후 문학사 다시 읽기』, 『현대문학의 연구』 57, 한국문학연구학회, 2015, 55~90면.
- 조규익, 『조윤제의 『조선시가사강』론 - 『한국고전시가사』 서술방안(1)』, 『애산학보』 19, 애산학회, 1996, 27~65면.
- 한창훈, 『조윤제 초기 시가 연구의 특징과 그 성격』, 『우리어문연구』 23, 우리어문학회, 2004, 153~168면.

The Life and Sijo of Cho Yunje as Revealed in *Donamjapji*

Yoon, Byung-yong

Donamjapji is a collection of writings that Cho Yun-je compiled and published in 1964 to commemorate his sixtieth birthday, gathering articles he had previously contributed to newspapers and magazines. This study aims to comprehensively examine Cho Yun-je's life and sijo from multiple perspectives by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and distinctive aspects of *Donamjapji* that have been overlooked in previous scholarship.

The diverse writings contained in *Donamjapji* reveal not only Cho Yun-je's attitude as a scholar maintained throughout his life, but also his persona as an intellectual and educator who never compromised with injustice, as well as a living being who experienced human anguish and conflict. Particularly noteworthy are the sijo poems he created himself, which exemplify how he realized the aesthetic consciousness of traditional sijo that he had researched throughout his lifetime through actual creative practice. These works represent his attempt to answer how sijo—already becoming an "outdated verse form"—can exist as a literary work that maintains its aesthetic ideals and essence while capturing the lives of modern readers. This endeavor holds significance in that it reveals Cho Yun-je's facet as a creative writer and demonstrates that his view of sijo was realized not merely as fossilized theory but as an actual practice in the dimension of creative writing.

Keywords: *Donamjapji*, Donam, Cho Yun-je, sijo form, modern sijo, Donam-hak

접수일자: 2026. 3. 31.
심사기간: 2026. 4. 1.~2026. 5. 10.
게재결정: 2026. 5. 10.